

# 우리나라의 茶禮와 茶禮에 관한 복식

- 궁중다례(宮中茶禮)를 중심으로 -

서 옥 경

경원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 The Study on the Tea Ceremony and the Costumes for the Tea Ceremony in Korea

- Focusing on Royal Tea Ceremony -

Ok-Kyung Suh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2003. 12. 8 투고)

### ABSTRACT

Tea has influenced the basis of Korean culture in history for a long time. The dissertation aims to establish the history of the costumes for the tea ceremony based upon historical data. During Three Kingdom period, there was a ceremony called Tea Offering Ceremony: In Silla times, there were Tea Offering Ceremony and Royal Shrine Tea Ceremony: In Corea age, they served Tea Presenting Ceremony: In Chosun age, tea ceremony was a part of Tea Presenting and was held during official greeting feasts for foreign envoys and during feast ceremonies at the court.

The costumes for the tea ceremony by period are as follows:

In Corea times, king and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wore official court attire for Enthronement Ceremony (Ka-Rye). For Official Guest Reception Ceremony (Bin-Rye), king wore official costume, but in case the envoy was not carrying an Official King's Letter, king wore Ordinary Costume.

In Chosun times, both king and prince crown wore ordinary costumes of winged silk crowns and royal robes (with golden dragon patterned segment) for Envoy Reception Tea Ceremony. In time of royal feast ceremony, king and prince crown wore ordinary costumes of winged silk crowns and royal robes, while queen wore red purple silk robe (red purple embroidered segment).

Chosun's royal court occasionally held tea ceremony at royal feast ceremonies during which king also wore ordinary costume of winged silk crown and royal robe as a costume to attract good fortunes.

In case of ceremonies for bad occasions, a tea ceremony was included in Royal Inquisition procedures (joong-hyung-ju-dae-eui) during which king wore simple costume (Pyun-Bok).

Key Words : costumes for the tea ceremony(다례에 관한 복식), royal tea ceremony(궁중다례)

## I. 서론

우리나라의 茶는 천사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거쳐 우리민족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고 전통문화 속에 민족적 정서를 형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변천하여 왔다.

신라시대의 다례(茶禮)는 종묘(宗廟)의 다례(茶禮)와 화엄신앙(華嚴信仰)과 미륵신앙(彌勒信仰)에 의한 불전(佛前)의 헌다례(獻茶儀禮), 화랑도(花郎徒)의 풍류도(風流道)를 형성(形成)하는 기저사상(基底思想)을 바탕으로 행해졌다.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등에서 보면, 궁중다례(宮中茶禮)는 사신맞이, 연회(宴會), 가례(嘉禮), 군신 의례(君臣儀禮) 등 조정의 대표적 의례에서 나타난다.

고려시대는 국가행사에 국가대전의식으로서 茶를 올리는 진다의식(進茶儀式)이 거행되었고, 고려의 의식다례(儀式茶禮)는 궁중다례(宮中茶禮)의 엄숙하고 장엄한 면모를 갖추었다고 하였다. 사신맞이, 책봉례(冊封禮)와 같은 가례(嘉禮), 설날이나 명절,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왕이 국사를 볼 때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거의 예외 없이 다례(茶禮)가 등장한다.

조선시대의 다례는 차(茶)를 진다(進茶)하는 의식의 한 부분으로, 사신영접을 위한 다례와 궁중의 연회다례 등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왕실의 다문화(茶文化)는 왕과 왕세자, 백관의 경우일 뿐 그 외의 왕비, 상궁 기타인물들의 의례참여와 그 복식에 대한 기록을 찾기 힘들었고, 복식이 남성으로 제한되어 여성의 다례에 관한 복식 연구에 한계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茶에 관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宋代에 간행되어 고려 중기의 역사를 다룬 「高麗圖經」을 통하여 연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의례를 중심으로 왕실의 다례(茶禮) 종류와 복식(服飾)을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 보았다.

최근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다례(茶禮)행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다례(茶禮)나 다도

(茶道)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례에 관한 복식(茶禮服飾)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전통다례 재현시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다례(茶禮)에 관한 복식의 체계를 정리하고자 함이며, 이러한 자료가 다도(茶道)의 교육과 다례(茶禮)의 실행에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II. 우리나라 다례의 역사적 배경

### 1. 다례의 정의

다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울풍속으로 새해에 사당을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홍석모, 1849)
- 2) 차를 마실 때의 예의범절, 차에서 행하는예(최범술, 1973)
- 3) '차례'로 음역되며 매월 초하루 보름이나 명절날 또는 조상들의 생일날 등 낮에 지내는 제사(김운학, 1982)
- 4) 다생활의 예절이나 법도, 행다법을 지칭하는 과학적 차원의 말, 다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절대경지요, 다생활의 예절이나 법도, 그리고 행다법을 지칭하는 과학적 차원의 말.(석용운, 1993)
- 5) 인(人), 신(神), 불(佛), 차(茶)를 바치는 의례.(김명배, 1993)
- 6) 차(茶)를 마시는 과정에서 예절과 심신수련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정상구, 1996)
- 7) 음력 매월 초하루, 보름, 명절날, 조상의 생일 등 아침에 지내는 제사 혹은 사람이나 신(神)에게 예(禮)를 갖추어 차(茶)를 달여서 올리거나 마시는 일.(최태경, 1982)
- 8) 명절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는 절사(節祀)라고도 하며, 正月一日과 八月十五日에 지내게 되는 茶祀는 곧 茶禮.(김한경, 1982)

- 9) 차(茶)를 마시고 대접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절차와 예절. (이계향, 2002)
- 10) 사람이나 신에게 차를 끓여 대접하는 법식 또는 그러한 예의. (이은주, 2001)

차(茶)를 마시기 위해 행해지는 제반 다사(茶事) 과정을 행다법(行茶法)이라 하였고, 행다(行茶)는 차(茶)를 우려 마시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례복(茶禮服)은 다례(茶禮)를 행할 때 갖추어 입는 복식을 말한다.

다례는 예를 갖추어 차를 올리는 의식이며, 우리 조상들은 국가 행사에 이를 행할시 의례(儀禮)에 따라 복식을 착용하였다.

## 2. 다(茶)의 전래와 다례의 사상적 배경

### 1) 茶의 전래

「三國遺事」에 「가야의 김수로왕은 왕비로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씨를 맞이하였는데 이때 왕비는 능고(綾袴)를 벗어 산영(山靈)에게 제물로 바쳤다.」<sup>1)</sup> 하며 이때 여러 가지 물화와 함께 차의 유래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삼국시대의 다례(茶禮)는 주로 선조(先祖)나 부처, 임금, 승려(僧侶), 화랑(花郎)등 공경(恭敬)의 대상(對象)에게 차(茶)를 달여 바치는 의식(儀式)이었는데, 이를 헌다의식(獻茶儀式)이라 한다. 삼국 시대의 헌다의식(獻茶儀式)은 문헌(文獻)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식(儀式)과 절차(節次)를 상세히 알 수는 없다.

고구려나 백제의 출토된 찻잔 유물(遺物)에서 차문화(茶文化)를 엿볼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나 백제에도 飲茶 풍속(風俗)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사료(史料)가 전해지지 않을 뿐이다.

### 2) 다례(茶禮)의 사상적 배경

제천행사(祭天行祀)는 천신(天神)에게 복을 비는 일종의 기복행사였으며, 동시에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는 보은행사(報恩行事)였다. 고조선 안에는 많은 소국들과 한(韓)이라는 군주가 있었으며 이 소국들은 정치적(政治的)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문화적

(文化的)으로는 하나였고, 이 소국들을 하나로 묶어 준 공동된 문화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행사였다. 동맹이 고구려의 소도제(蘇塗祭)라는 것, 고구려의 혜량법사(惠亮法師)가 신라에 전한 것도 소도제(蘇塗祭)였고, 그것이 정리되어 화랑제도(花郎制度)가 완비되었으며, 호국법회(護國法會)의 팔관회와 함께 삼국통일(三國統一)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3. 삼국시대의 다례의식

### 1) 고구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제천(祭天)과 시조(始祖)에 대한 제례(祭禮)가 중요시되었다.

고구려(高句麗)는 중국(中國)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했으며 중국의 역대조(歷代朝)와 국교(國交)를 맺었었기 때문에 차문화(茶文化)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고구려(高句麗 B.C 37년~A.D 668년)는 180년 고국천왕 2년 졸본에 가서 시조(始祖)인 동명왕조에 제사를 지내고, 228년 동천왕 2년 동명왕조에 참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기백(1987)에 의하면 고조선이래 삼국시대 초기까지 제정일치(祭政一致) 시기에 한민족의 신앙과 문화는 고신교(古神敎) 내지 무(巫)였다. 고구려는 기후 조건 때문에 차가 직접 생산될 수는 없었으나,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불교와 도교의 전래와 함께 차문화(茶文化)가 보다 일찍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의 차에 대한 문헌기록은 거의 전해지는 것이 없고, 고구려 고분에서 餅茶標本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 2) 백제

백제(百濟 B.C 18년~A.D 660년)는 243년 고이왕 10년에 제단을 모아 천지신명에 제사를 지내고, 287년 책계왕 2년 온조왕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는 중국의 문물을 신라보다 일찍 받아들이고 문화수준도 높아 차인구가 많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데, 무령왕릉(武寧王陵)과,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石塔)에서 출토된 찻잔들로 미루어 그들이 飲茶를 즐긴 것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 3) 신라

허황후의 다종자(茶鐘子) 전래로 시작된 가야의 다문화(茶文化)는 신라에 전해지고 차(茶)는 불교문화의 영향 아래 승려와 화랑이 즐겨 마셨다

「三國史記」에 흥덕왕 3년(828)에 대림이 당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올 때 차씨를 가져와 심었고 선덕왕(632~647)때 이미 토산차가 있었다<sup>2)</sup>고 기록이 있는데 신라는 당(唐)나라에서 차씨가 삼국 중 최초로 전래되었다. 신라 제30대 법민왕(法敏王) 용삭(龍朔) 원년 신유(辛酉)(661) 3월에 왕이 조서를 내려 해마다 명절이면 술과 단술을 마련하고 떡과 밥·茶·과실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사시 차가 올려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신라시대 불교 다례(茶禮)에 대하여서는 「三國遺事」에 미륵신앙을 믿는 스님인 충담사(忠談師)가 삼진날과 중구날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하여 불공다례(佛供茶禮)를 올렸다<sup>3)</sup>는 기록이 있어 이 때부터 이미 불교적 헌다의식(獻茶儀式)이 자리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팔관회(八關會)의 시초는 신라 진흥왕(眞興王) 12년(551년) 때이며<sup>4)</sup>, 고조선 때부터 제물로 올리는 과정에서 시작된 다의(茶儀)는 우리의 역사에서 민족과 함께 하는 예속(禮俗)의 바탕이 되었다.

### Ⅲ. 고려시대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 1. 고려시대 다례의 역사적 배경

고려왕조는 신앙·사상을 불교의 이념에서 구하였으나, 신라말 고려초의 전환기에 새로운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정은 유교에서 구하여, 고려 초기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을 유교의 질서인 오례(五禮)로 귀일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원적 요소 때문에 고려의 오례는 불교적 요소, 전통적 요소가 함께 포함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식(國家儀式)에 국가대전의식(國家大典儀式)으로서 차(茶)를 올리는 진다의식(進茶儀式)이 거행되었다. 이는 삼국시대의 헌다의식(獻茶儀式)이 발전하여 차(茶)를 올리는 의식으로 거행되었다.<sup>5)</sup> 「高麗史」에는 의식다례(儀式茶禮)가 기록되어 궁중다례(官中茶禮)의 엄숙하고 장엄한 면모를 보이며, 불가(佛家)에서도 수행(修行)을 돕는 수단뿐만이 아닌 다선일체(茶禪一體)의 경지로 차정신(茶精神)을 확립시켜 법도와 체계를 세워 놓았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불교가 국교가 되고 사찰에서는 차(茶)를 선(禪)의 필수사항으로 삼았으며, 궁중에는 다방(茶房)이, 사찰에는 차(茶)를 바치는 다촌(村)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봄에는 연등회(燃燈會), 가을에는 팔관회(八關會)를 국가의 중요한 의식으로 행하였는데 이때 진다례식(進茶禮式)이 거행되었다. 연등회(燃燈會)나 팔관회(八關會) 등 공동체 의식에서 임금께 차(茶)를 올리는 예(禮)를 고려사에는 '진다(進茶)'라 하였고, 이 진다의식은 가례(嘉禮), 길례(吉禮), 빈례(賓禮), 흉례(凶禮)에 행하여졌다.

다례는 접대다례(接待茶禮)와 제전다례(祭奠茶禮)로 나뉘는데, 제전다례는 죽은 사람과 영혼이나 종교적인 신을 위한 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례로 제사다례를 의미한다. 고려왕실의 제전다례로는 정월초하루(正月), 단오, 추석, 중구일에 경령전(景靈殿)에서 왕이 친히 제를 지냈다.<sup>6)</sup>

접대다례는 영접다례(迎接茶禮)와 연회다례(宴會茶禮)로 구별할 수 있다. 영접다례는 사신을 영접할 때 행하였고, 연회다례는 각종 연회에서 행해졌다.

고려 때까지 다례(茶禮)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은 시기로 다의(茶儀)란 용어로 표현되어진다.

#### 2. 팔관회와 연등회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 1) 팔관회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팔관회는 연등회와 함께 고려시대에 거행되던 국가의례의 하나로, 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 중에도 가을의 팔관회(八關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10월의 동맹(東盟)의 모

임은 지금에도 팔관회(八關會)라 한다」<sup>7)</sup>고 되어 있고, 고려의 팔관회(八關會)를 소도제(蘇塗祭)의 연장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은 소도제(蘇塗祭)의 준비 과정으로서 삼일치제(三日致齋)와 칠일산제(七日散齋)에 해당하는 것이다. 열하루 전에 제계(齋戒)를 시작하였던 의식(儀式) 절차를 간소화시켜,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의 양일제계(兩日齋戒)로 줄여서 팔관회(八關會)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와 같은 제천의식(祭天儀禮)을 통해 차(茶)라는 신성한 매개물이 제단에 올려지면 제천의식(祭天儀式)의 형태로 하늘에 제사가 지내졌고 단군(檀君) 왕조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신앙인 제천의식(祭天儀式)이 고려(高麗) 때까지 그대로 유습되어 다의(茶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sup>8)</sup>

「高麗史」에 의하면 팔관회(八關會)는 천령(天靈), 오옥(五嶽), 명산(名山),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으로, 신라 때부터 내려온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이며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로 나누어지는데, 진다의식(進茶儀式)은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에 모두 행하였었다<sup>9)</sup>. 팔관회(八關會)의 진다의식(進茶儀式)은 신라 진흥왕(551) 때에 시작되어 고려 공양왕(1392)까지 840여년 동안 계속된 고려(高麗) 진다의식(進茶儀式)의 백미(白眉)이다. 이때 행하여진 진다의식(進茶儀式)은 고려(高麗)의 차문화(茶文化)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朝鮮時代) 다례의식(茶禮儀式)으로 계승되었다.

「고려사」에 왕이 자황포(紫黃袍)를 입고 소회의 다례를 거행하였다<sup>10)</sup>는 기록을 볼 때 팔관회의 다례복식으로 왕이 자황포를 착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연등회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연등회가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고, 본격적으로 거국적 행사가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등공양(燈供養)이 연등회의 주요의식이었으며, 연등회는 주로 정월 보름에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음력 2월 또는 4월 초파일 에 열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성격과 규모가 축

소되고 변화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 보면 연등회(燃燈會)를 지낼 때 진다의식(進茶儀式)을 행하였다. 연등회(燃燈會)의 절차는 소회일(小會日)에 지내는 좌전(坐殿)의식과 조진(祖眞)을 알현(謁見)하는 의식이 있고, 이어서 대회일(大會日)의 본 행사가 있는데, 진다의식(進茶儀式)은 대회일(大會日) 좌전(坐殿) 의식(儀式) 때이다.

燃燈大會에는 便殿에서의 예식이 끝난 후 茶禮를 행하였는데, 「高麗史」나타난 내용은 「왕이 자황포를 입고 전에 나와 앉자 채찍을 올리고 금위 대원이 만세를 부르고 재배한다」<sup>11)</sup>하여 왕이 자황포를 입었다고 되어있는데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대표적인 명일로서 왕은 조복(朝服)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 여북지 왕 시조지복의 설명에는 「시조지복(視朝之服) 국초(國初)에 제정하여 자황포(柘黃袍)를 썼다. ……………생략」라 있다. 즉 왕의 조복은 국초에는 자황포(柘黃袍)를 착용하였으며 그 후 의종조에는 때에 따라 자황포(赭黃袍)와 치황의(梔黃衣)를 입었다.

이 때 조복(朝服)의 복색(服色)은 다례(茶禮)가 있는 연등대회(燃燈大會)와 팔관회(八關會)의 대회(大會)·소회(小會)에는 자황포(赭黃袍)를 입고, 다례(茶禮)가 없는 연등소회(燃燈小會)에는 치황포(梔黃袍)를 입었다. 이 때 태자와 백관들도 조복(朝服)을 갖추었을 것이다.

## 3. 오례시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국가의례로서의 오례(五禮)의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高麗史」 예지(禮志)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의종대(1146~1170)에 편찬된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 50권을 바탕으로 하였다.

「고려사」는 유교의 오례체계인 古·凶·軍·賓·嘉禮의 항목으로 예지(禮志)를 구상하여 귀신(鬼神)에 대한 제례·죽음·군사·외교 및 접객·경사의 항목으로 고려의 정치 사회질서의 규범내용을 보이고 있었으며, 의식절차와 함께 연대기도 수록되어 있었다. 다섯 가지 중요한 의례에서 왕실의 위상을 우

선하는 禮의 체계를 통하여 왕의 위상이 최고임을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왕의 의례로만 인식되지만, 결국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례(國家禮)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고려사」에지에 나타나는 오례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길례에 2종, 흉례에 2종, 빈례에 5종, 가례에 17종으로 총 26종의 의식에 다의(茶儀)가 기록되어 있었다. 고려의 오례는 군례를 제외하고는 다의(茶儀)가 전부 행해졌었고 오례중에서 다의(茶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례는 가례(嘉禮)와 빈례(賓禮) 의식이며, 다의(茶儀)의 형식의 사다(賜茶), 설다(設茶)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고려사」에지의 오례에 나타난 다의(茶儀)

의식수	25	11	4	5	55	100
茶儀(進茶, 設茶, 賜茶受茶)	2	2	-	5	17	26
참고	행로다담	2	-	-	5	7
	다방	1	2	-	5	8

1) 가례시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가례(嘉禮)란 혼례의식(婚禮儀式), 관례의식(冠禮儀式), 등극의식(登極儀式), 존호(尊號)를 드리는 의식(儀式), 책봉의식(冊奉儀式) 등 경사스러운 의식(儀式)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진다의식(進茶儀式)을 행한 것은 태후(太后), 왕비(王妃), 왕태자(王太子), 왕자왕비(王子王妃) 등의 책봉의식(冊奉儀式) 때와 원자탄생(元子誕生)과 공주하가(公主下家), 군신연회(君臣宴會)와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때 모두 진다의식(進茶儀式)을 행하였다.

왕비(王妃), 왕태자(王太子), 왕자(王子)·왕희(王姬) 책봉의식(冊封儀式)이나 각 종 연회(宴會)의 의

식에 착용하던 왕의 복식은 조복(朝服)으로서, 「高麗史」에서 의종 때 의례상정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날과 동지절일, 왕의 탄신일이나 대관전(大觀殿) 대연회, 팔관회, 연등대회, 원구에 풍년을 비는 제사로 왕이 출궁할 때, 왕태자의 혼례 때, 왕비와 왕태자의 책봉시와 임헌발책할 때 등에는 자황포(赭黃袍)를 입고, 연등소회할 때는 치황포(梔黃袍)를 입는다<sup>13)</sup>고 기록되어 있다. 충렬왕 27년(1301)에는 복색(服色)을 원나라 제도에 따라서 지황(芝黃)으로 자황(赭黃)을 대신하였다가 얼마후 다시 황포를 사용하였다.

「高麗史」의하면 다례의식(茶禮儀式)을 행하였던 왕비와 태자의 책봉의식 때 문무백관과 행례관은 조복(朝服)을 입었다<sup>14)</sup>고 되어있다.

2) 빈례시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빈례(賓禮)란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예절로, 이 때에도 진다(進茶)는 귀중한 의식(儀式)이었다. 매년 중국의 사신(使臣)이 올 때마다 王은 친히 맞이하고 반드시 차(茶)와 술을 베풀었다. 빈례(賓禮)는 왕실대 왕실, 즉 국가 대 국가간에 사신을 맞고 보내는 의례이며 '북조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迎北朝詔使儀]'과 '북조의 기복 고칙사를 영접하는 의식 [迎北朝起復告勅使儀]'과 '조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迎大明無詔勅使儀]'에서만 진다의식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지 빈례조의 북조와 대명과의 의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이 다음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高麗史」에 왕이 사신을 접견할 때는 공복을 착용하였다<sup>15)</sup>는 기록으로 보아, 북조나 대명의 조칙사(詔勅使)에 대한 다례시(茶禮時)에도 공복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송나라의 서공이 쓴 「高麗圖經」에는 중

<표 2> 고려의 빈례의식과 다례에 관한 복식

①북조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迎北朝詔使儀)	進茶·賜茶酒食	
②북조의 기복 고칙사를 영접하는 의식 (迎北朝起復告勅使儀)	宣茶酒·茶酒禮	왕 - 玄冠, 素服
③명나라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 (迎北朝詔使儀)	進茶	
④명나라의 위문사를 맞이하는 의식 (迎大明賜勞使儀)	進茶	
⑤조서를 가지고 오는 않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迎大明無詔勅使儀)	設茶	왕 - 의장을 갖추. 세자·백관 - 常服

국의 사신을 맞는 왕의 복식은 자라공복(紫羅公服), 옥대(玉帶), 상홀(象笏)이었다<sup>16)</sup>고 한다.

3) 흉례시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高麗史」의하면 흉례(凶禮)는 임금의 상사를 비롯하여 일반 조문과 5服에 관한 禮를 말한다<sup>17)</sup>. 64권 흉례(凶禮)는 왕실의 상(喪)·장(葬)에 관한 모든 의식으로 국가 규범적 예전(禮典)의 성격을 지닌다. 흉례의(凶禮儀) 중에서 제신상(諸臣喪) 때에는 부의품(賻儀品)으로 차(茶)를 하사(下賜) 하였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의식에서는 진다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때 임금께 차(茶)를 올리고 신하(臣下)에게도 차(茶)를 하사(下賜) 하였다.

중죄를 처벌하는 의식에 왕은 편복(便服)을 입었는데 이 때 편복(便服)이란 평상시에 입는 옷을 말한다. 왕의 평상시 집무복은 상복(常服)이고 「高麗圖經」에 의하면 왕의 상복으로 오사고모(烏絲高帽)를 쓰고 금벽(金碧)을 간수(間繡)한 상색(紉色)의 소매통이 좁은 포(袍)를 입고 허리에는 자색라(紫色羅)의 띠(勒巾)를 하였다<sup>18)</sup>고 되어있다.

「高麗史」를 살펴보면 중국의 사신을 맞을 때와 책봉, 혼례, 각종 연회와 집무를 볼 때 등 궁중의 중요한 의식에 거의 빠짐없이 茶禮를 행하였는데, 「高麗史」의 궁중다례(宮中茶禮)에 나타난 복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高麗史」에 나타난 宮中茶禮와 服飾

目次	志卷 第18 禮6	志卷 第19 禮7	志卷 第20 禮8	志卷 第21 禮9			志卷 第22 禮10
	凶禮	嘉禮	嘉禮	嘉禮			嘉禮
儀	君臣茶禮	宮中嘉禮		宮中嘉禮			君臣茶禮
	重刑奏對儀	冊王妃儀	元子誕生嘉儀	冊太子儀	冊王子王姬儀	公主下家儀	王太子節日受宮官賀并會儀
服飾	왕 - 便服	왕 - 黃袍 백관 - 朝服	왕 - 袍	왕 - 黃袍 백관 - 朝服			왕태자-袍
							大觀殿宴君臣儀

4) 길례시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길례(吉禮)란 제사에 주로 하는 의식(儀式)인데, 상례(喪禮)와 장례(葬禮)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제사 의식(祭祀儀式)을 가리킨다. 길례(吉禮)는 대사(大祀)와 소사(小祀)로 나뉘는데, 중사(中祀)는 적전(籍

田), 선잠(先蠶), 문선왕묘(文宣王廟)가 해당되고, 이 중에서 진다의식을 행하던 행사는 중사(中祀)때 문선왕묘(文宣王廟)에 한하였고, 경령전(景靈殿)에는 다방(茶房)의 관원이 동원되어 행사에 참여는 하였지만 진다의식은 행하지 않았다. 그 외의 행사에는 진다의식이 없었다.

<표 4> 高麗시대 五禮시의 의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高麗	
	儀禮	服飾
嘉禮	冊王妃儀 元子誕生嘉儀 冊太子儀 冊王子王姬儀 公主下家儀 元會儀 大觀殿宴群臣儀 上元燃燈會儀 仲冬八關會儀	왕-朝服 백관-朝服
賓禮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	왕-公服 또는 常服
凶禮	重刑奏對儀	왕-便服 백관-공복

이때의 복식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는 없으나 조선시대의 제사시 다례에 관한 복식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주다례(晝茶禮)에 왕은 규모에 따

라 면복이나 상복을 입었던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제사시 다례에 관한 복식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 오례시의 의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 IV. 조선시대의 다례에 관한 복식

### 1. 조선시대 다례의 사상적 배경

조선왕조는 성리학(性理學)을 국시(國是)로 하는 유교국가이다. 조선은 건국하자,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례(五禮)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태종대(1400~1418)부터 착수하여 세종대(1418~1450)에 이루어진 고제(古制)의 연구는 오례의 체계를 새롭게 다듬어 세종조의 五禮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새로이 건립된 조선왕조가 마련한 최초의 국가예전(國家禮典)이다. 조선의 기본 禮典으로 일컬어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성종 5년(1474)에 편찬되었다. 「國朝五禮儀」에 결하여 오례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을 해설하고 圖說을 붙인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가 함께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국조오례의」의 완성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과 더불어 조선의 국가체제가 완전히 정비되는 동시에 유교가 국시(國是)로 정착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sup>19)</sup>

고려의 진다의식(進茶儀式)은 조선 시대에는 다례(茶禮)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國朝五禮儀」에 의거해서 궁중 안에서 행해진 모든 다례의식(茶禮儀式)을 궁중다례(宮中茶禮)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사신영접(朝廷使臣迎接), 진연례(進宴禮), 진전(眞殿) 등에서 궁중의 다례(茶禮)가 행하여졌고, 종교적으로는 유·불·도교에 의한 다례(茶禮)가 계속되었고, 민간에서도 예의범절에 따른 다례(茶禮)가 행하여졌다.

조선 초엽의 조정과 왕실에서는 다례(茶禮)에 대한 예법(禮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선비 다인(茶人) 들은 다도(茶道)를 청빈함의 상징으로 삼아 소박한 다풍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중엽의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그리고 소빙기(小氷期)를 겪으면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피폐해짐에 따라 정신문화라 할 수 있는 음다문화(飲茶文化)가 급격하게 쇠퇴하여 차(茶)의 품격도 떨어졌고 차(茶)에 대한 미풍양속도 그 뜻이 변질되었다.

양반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새로이 떠오르게 된 실학과 더불어 다문화(茶文化)가 다시금 중흥기를 맞

게 된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자하 신위(紫霞 申緯, 1769~1847),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초의 의순(草意 意恂, 1786~1866) 등이 음다풍습을 주도하였으며 승려와 문인들 사이에 차(茶)를 주고받는 일이 성행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周)나라의 정치를 최고의 이상으로 추구하게 되었으며, 정치, 경제, 법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국가조직을 예제(禮制)화하는 데 「주례(周禮)」를 실질적인 이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예제화(禮制化)된 국가조직은 다섯 개의 주제로 분류되는 오례(五禮)라는 의례 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용(行用)되었다.

국가(國家)에서 행한 다례의식(茶禮儀式)은 고려 때처럼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때뿐만 아니라 군례(軍禮)에도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 2. 사신영접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만큼 飲茶習俗의 전통이 다양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고려 연회다례의 맥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고려 궁정에서 도교, 불교, 전통신앙, 유교의 질서 속에서 전개되었던 다양한 연회의 다의(茶儀)가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도입으로 심화된 유교의 예(禮)사상을 바탕으로 다례(茶禮)를 완성시켰으며, 특히 사신영접연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정(朝廷)에서 거행(舉行)된 최대규모(最大規模)의 다례(茶禮)는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서 중국(中國)의 칙사(勅使)를 맞이한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태종 원년(1401)에 「왕이 태평관에서 中國 使臣과 더불어 茶禮를 행하였다」<sup>20)</sup>는 다례(茶禮)에 대한 맨 처음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궁중에서 치뤄진 다례(茶禮)로는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행하는 빈례가 가장 많은데, 미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사신을 맞이하여 거행된 다례(茶禮)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端宗實錄」 조칙을 맞는 의식절차를 정한 기록에는 「전하가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



고 여를 타고 나오는데… 다례(茶禮)를 행한다.<sup>21)</sup>라고 하여 왕이 다례를 행할 때 곤룡포(袞龍袍)와 익선관(翼善冠)인 상복(常服)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왕실다례에서 왕은 사신을 맞을 때 상복인 곤룡포(袞龍袍)와 익선관(翼善冠)을 갖추고 다례를 행하였다.

「國朝五禮儀」<영조서의(迎詔書儀)>와 <영칙서의(迎勅書儀)>를 보면, 조사(詔使)와 칙사(勅使)에 대한 다례(茶禮)시에는 왕과 왕세자는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종친과 문무백관은 상복(常服)을 착용하며, 「國朝五禮儀」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賻儀)에 의하면 시호(諡號)·제문(祭文)·적부(吊賻)의 하사를 받는 의식에 나타나는 다례(茶禮)시에는 왕은 익선관(翼善冠), 백포(白袍),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를 입고, 종친과 백관은 백의(白衣),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sup>22)</sup>고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國朝五禮儀」의 中國使臣迎接 茶禮와 服飾

儀禮	服飾
迎詔書儀	왕 - 翼善冠, 袞龍袍
	왕세자 - 翼善冠, 袞龍袍
	종친·문무백관 - 常服
迎勅書儀	왕 - 翼善冠, 袞龍袍
	왕세자 - 翼善冠, 袞龍袍
	종친·문무백관 - 常服
迎賜諡祭及弔賻儀	왕 - 翼善冠, 白袍, 烏犀帶, 白皮靴
	종친·백관 - 烏紗帽, 黑角帶, 白皮靴

종친과 문무백관이 착용하였던 상복(常服)은 사모(紗帽), 복(服), 대(帶), 화(靴)로 구성되어 있고, 품관(品官)에 따라 단령포(團領袍)의 복색(服色)과 흉배와 대(帶)의 종류를 달리하였다.

왕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하였는데, 시사복(視事服)이나 시복(時服)도 상복(常服)을 가리킨다. 상중(喪中)일 때는 익선관(翼善冠), 백포(白袍),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차림으로 왕이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영접의례(迎接儀軌)에 나타난 별다담(別茶啖)과 다례과반(茶禮果盤), 미수행과(味數行果)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연향(宴享)중 다례(茶禮)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왕과 왕세자 그리고 백관들은 다례(茶禮)만

을 위한 연향(宴享)에 참석 한 것은 아니지만 다례(茶禮)는 연향(宴享)의 한 부분으로 그 연향(宴享)의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연향(宴享)에 참가하는 복식으로 왕과 왕세자는 곤룡포(袞龍袍)에 익선관(翼善冠)을 백관은 그에 따른 조하복색(朝賀服色)을 착용하였다.

백관들이 왕과 함께 사신을 영접하는 다례 등에는 조하복색(朝賀服色)으로 왕의 복색에 따라 제복(祭服), 조복(朝服)을 입었고 차(茶)와 관련한 자신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상복과 시복을 입었다. 사헌부(司憲府)의 조회나 각 관청의 다시(茶時)에 참여 할 때에는 공복을 직책에 따라 색(色)을 달리하여 입었다. 또한 공식적인 계회(契會)나 모임에서의 차(茶) 모임에 참여 할 때에는 흉배(胸背)가 없는 시복(時服)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생활차(生活茶)를 마실 때에는 그들의 평상복인 바지와 저고리에 포(袍)류를 입고 머리에는 취향에 따라 두식(頭飾)을 착용하였다.

### 3. 궁중연회의 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조선왕조는 국가적 행사시 모든 행사의 전말을 의례(儀軌)를 써서 기록하였는데, 진연의례(進宴儀軌), 진찬의례(進饌儀軌), 진작의례(進爵儀軌)에는 진연(進宴)의 논의과정, 준비과정, 의식절차, 진행과정, 행사 후 포상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진연의례(進宴儀軌)는 숙종 45년(1719)에 작성된 기해진연의례(己亥進宴儀軌)이다. 임진왜란(1592~1598),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7)을 거치면서 귀중한 역사적 사료들이 상당히 유실됐는데, 이 때 조선왕조의 전반기 궁중진연(宮中進宴)에 관한 기록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진연(進宴)은 회례연(會禮宴), 양노연(養老宴), 왕·왕비·대비·세자·세자빈의 생진(生辰), 회갑, 4旬, 望5인 41세, 望6인 51세 같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단오, 추석 등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와 사신연(使臣宴), 사연(賜宴), 존호(尊號) 등의 비정례적인 행사인데, 그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가 나타나 있다.

진연(進宴)·진찬(進饌)·진작(進爵) 의례(儀軌)

를 바탕으로 진단을 행한 것은 <표 6>과 같다.

<표 6> 朝鮮王朝의 進宴·進饌·進爵儀軌

戊子進爵儀軌	純祖28年(1828)	純元王后 4旬生辰 頌壽宴
戊申進饌儀軌	憲宗14年(1848)	大王妃4旬, 6旬 頌壽宴
戊辰進饌儀軌	高宗5年(1868)	大王大妃 回甲 頌壽宴
丁丑進饌儀軌	高宗14年(1877)	大王大妃 7旬生辰 頌壽宴
丁亥進饌儀軌	高宗24年(1887)	大王大妃 8旬生辰 頌壽宴
壬辰進饌儀軌	高宗29年(1892)	高宗 41歲生辰, 登極30年 記念宴
辛丑進饌儀軌	光武5年(1901. 5)	明憲太后 8旬生辰 頌壽宴
壬寅進饌儀軌	光武6年(1902. 4)	高宗 耆老所 入社 記念宴

진연의례(進宴儀軌)에는 왕(王), 왕세자(王世子), 대왕대비(大王大妃), 왕비(王妃), 왕세자빈(王世子嬪) 등과 같은 수진연자(受進宴者)와 종친(宗親), 백관(百官), 정재자(呈才者), 상궁(尙宮), 각차비(各差備)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의식절차 외에도 진찬도(進饌圖)나 의궤도(儀軌圖)를 통해 각 신분에 따른 복식을 알 수 있으며 각종 의궤속에 조선왕실에서 차(茶)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있다.

숙종 45년(1719) 숙종이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하며 선물로 다모(茶母) 2명과 송화다식을 내린 것을 기록한 진연의례(進宴儀軌)가 있다. 또한 영조 41년(1765) 10월 11일 임금의 71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고자 세손과 백관들이 다섯차례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간소하게 차리라 명하여 수작의례(受爵儀軌) 기록에 다모(茶母) 2명과 백대다완(白大茶碗) 1개, 담장차(痰薑茶), 백다식(白茶食), 홍다식(紅茶食)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sup>23)</sup>

역대 의궤(儀軌)를 통해서 볼 때 조선왕조 궁중진연시 왕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는데, 을묘진찬의례(乙卯進饌儀軌)에 의하면 당시 정조는 화성봉수당(華城奉壽堂) 진찬시에는 용복(戎服)을, 화성성묘전배의시(華城聖廟展拜儀時)에는 면복(冕服)을 예외적으로 착용하고 있다.<sup>24)</sup>

조선왕조의 왕비는 궁중진연에서 두식(首飾)을 하고 적의(翟衣)를 착용하였고, 이것은 을묘진찬의(乙卯進饌儀)에서부터 임진진찬의(壬辰進饌儀)까지 동일하였다.

『尙方定例』의 기록에 의하면 진연시 왕비 적의의 구성은 적의(翟衣), 별의(別衣), 내의(內衣), 수(綏), 폐슬(蔽膝), 대대(大帶), 하피(霞披), 상(裳), 면사(面紗), 흉배(胸背), 적말(赤襪), 적석(赤舄)이다.

#### 4. 기타 왕실다례와 다례에 관한 복식

『朝鮮王朝實錄』에서 중국사신접대를 위한 다례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진전, 봉선전, 선원전 등에서의 다례이다. 진전은 역대 왕의 초상인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향사하던 처소로서 각 왕의 생신 날 다례(茶禮)를 거행하였다. 봉선전과 선원전은 모두 진전의 일종으로, 봉선전은 세조의 진영을 봉안한 곳이고, 선원전은 창덕궁에 설치되어 열성조어진(列聖朝御眞)을 받들던 곳이다.<sup>25)</sup>

진전(眞殿)에서의 다례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中宗實錄』 20년에 「처음에 천담복(淺淡服)으로 행幸하여, 봉선전에 가서는 길복(吉服)으로 다례를 거행하고 능에 가서는 도로 천담복(淺淡服)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번은 길복(吉服)으로 행하여 거행한 뒤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능을 참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sup>26)</sup>하고 전교하였고, 『哲宗實錄』 2년에는 예조에서 진전(眞殿)에 다례를 친행할 때 유양곤룡포(有揚袞龍袍)를 마련하라고 하였다.<sup>27)</sup> 따라서 진전에서의 다례시 길복(吉服)을 입었으며, 왕은 흉배가 있는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하였다.

부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내는 다례를 별다례(別茶禮)라 했는데, 별다례(別茶禮)와 관련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는 복식과 관련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진전에 나가 조석전(朝夕奠), 상식(尙食) 등을 올린 후에 지내는 제사인 주다례(晝茶禮)에 왕은 규모에 따라 면복(冕服)을 입거나 상복인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입었다.

주다례(晝茶禮)란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후 3년만에 혼전(魂殿)과 능소(陵所)에서 차와 간단한 음식으로 정오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왕과 왕후의 기제사, 묘제사, 주다례(晝茶禮) 때에 다탕(茶湯)을 올렸다.

『英祖實錄』 26년의 기록에 의하면 영조는 익선관(翼善冠), 揚(흉배)이 없는 흑단령(黑團領)과 청정소

옥대(靑鞞素玉帶)를 갖추고 효장묘에 거동하여 다례를 행하였다<sup>28)</sup>고 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시대의 궁중 다례복식을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朝鮮時代의 宮中茶禮에 관한 복식

朝鮮	
儀禮	服飾
使臣迎接 茶禮	왕-翼善冠, 袞龍袍(常服)
	또는 翼善冠, 白袍, 烏犀帶, 白皮靴(喪中)
宮中宴會 茶禮 (進宴)	왕-翼善冠, 袞龍袍(常服)
	왕비-翟衣
	왕세자-翼善冠, 袞龍袍(常服)
기타 王室 眞殿茶禮	왕-翼善冠, 袞龍袍(常服)
茶禮 眞殿茶禮	왕-翼善冠, 袞龍袍(常服)

## V. 결론

차(茶)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의 저변에 영향을 끼쳐왔다. 차(茶)는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소(多少) 쇠퇴해졌으나 오늘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주로 선조(先祖)나 부처, 임금 등 공경(恭敬)의 대상에게 차(茶)를 달여 바치는 헌다의식(獻茶儀式)이었고, 고려 때에는 국가의식에 국가대전의식(國家大典儀式)으로서의 차(茶)를 올리는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도 궁중에서는 고려의 맥(脈)이 이어져 「國朝五禮儀」에 의거하여 미처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수많은 다례가 거행된 것을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알 수 있다. 불가다례(佛家茶禮)는 고려 다례(茶禮)의 정신을 계승하였지만 시대적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는 위치였으므로 그 빛을 잃어갔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후 茶는 쇠퇴하고 그 의식(儀式)만 남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유의 다례(茶禮)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다례의식에서 나타난 시대별 다례에 관한 복식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 시대에는 고분벽화를 통하여 귀족계급의 음다문화와 복식을 짐작할 수 있고, 신라시대의 불교와 화랑정신은 고려시대에 전수되어 茶의 정신세계를 운택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예지의 五禮를 중심으로 다의(茶儀)가 행해졌다.

가례(嘉禮)시 왕은 조복(朝服)을 착용하였고, 백관(百官)들도 조복(朝服)을 착용했으나, 백관조복(百官朝服)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이 없어 송제(宋制)를 따랐거나 공복으로 통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빈례(賓禮)에 해당되는 北朝나 大明의 사신을 맞이할 때의 왕의 복식은 공복(公服)을 착용하였고, 조칙서(詔勅書)를 가져오지 않은 사신과의 다례(茶禮)시에는 상복(常服)을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사신영접 다례(茶禮)에는 왕과 왕세자가 모두 상복(常服)인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하였는데, 상중(喪中)에는 익선관에 백포(白袍)를 착용하였다. 백관들도 그에 따라 상복을 착용하였다.

궁중진연(宮中進宴) 시의 왕과 왕세자의 복식은 사신영접 다례(茶禮)와 마찬가지로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의 상복이고 왕비는 적의(翟衣)제를 갖추었다.

조선왕조에서는 수시로 진전, 봉선전, 선원전 등에서 다례를 행하였는데, 이 때의 왕의 복식도 길복(吉服)으로서, 역시 익선관과 곤룡포의 상복을 착용하였다.

흉례시 중형주대의(重型奏對儀)에 왕은 편복(便服)을 착용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궁중다례에 관한 복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오례를 중심으로 한 빈례나 가례시의 다례에 관한 복식이 주로 나타나 있고, 조선시대에는 사신영접시와 궁중연회시의 다례에 관한 복식의 기록이 주를 이룬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볼 때 다례가 궁중에서 행해졌던 행사의식에서 중요한 의례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의 다례에 관한 복식이 다례의식을 대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복원과 그 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다례(茶禮)의 역사적 고찰은 물론 각 지역에서 다회(多繪)가 결성되면서 茶는 기호

품(嗜好品)으로 또는 도덕성함양(道德性涵養)과 예절교육(禮節教育)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 다례복식의 보존과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삼국사기 제 2권 가락국기
- 2) 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新羅本紀)> 흥덕왕조(興德王條)
- 3) 삼국유사 제2권 경덕왕조(景德王條)
- 4) 이만열 (1996). 한국사 연표. 역민사, p. 25.
- 5) 홍금이 (2002). 고려시대 궁궐다의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0.
- 6) 이은주. 고려시대 궁정시대에 나타난 다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7) 고려도경 권 제 17 사우조(祠宇條)
- 8) 홍금이. 앞의 논문, p. 98.
- 9) 고려사 제69권 禮11 가례잡의(嘉禮雜儀)
- 10) 고려사 제 23권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 11) 고려사 제23권 禮11 상원연등회의(上元燃燈會儀)
- 12) 이범직, 김기홍 (2000).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건국대학교출판부.
- 13) 고려사 시조지복(視朝之服)조
- 14) 고려사 제65권 예지조에
- 15) 고려사 여복지(與服志)
- 16) 고려도경 권제 7 관복조(冠服條)
- 17) 고려사 제 59권 지제13권 예1
- 18) 고려도경 권제 7 관복조(冠服條)
- 19) 지두환 (1994).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출판부, p. 154.
- 20) 태종실록 1권 1년 2월 14일
- 21) 단종실록 14권 3년 4월 22일
- 22) 국조오례의 권지 3 가례 영조서의, 영칙서의
- 23) 이연자 (1998). 차가 있는 삶. 초롱, p. 247.
- 24) 김경실 (1998). 朝鮮王朝 宮中違宴儀軌에 나타나 服飾의 造形美.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9-50.
-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6) 중종실록 53권 20년 3월 3일
- 27) 철종실록 3권 2년 6월 17일
- 28) 영조실록 76권 28년 5월 16일